

고령출산모의 부모역할만족도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Parenting Satisfaction and Sence of Competence in Older Mothers

강 희 경**

Kang, Hee Kyung

ABSTRACT

The 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parenting satisfaction and sence of competence in older mothers. The subjects consisted of 150 mothers who had children from 1 to 36 monthes of age. "Older" maternal age was defined as a woman at the age of 35 years or more.

The results showed that older mothers' motivations for pregnancy was mostly sex preference. There was no difference in parenting satisfaction and sence of competence by motivation for pregnanc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ing sence of competence by length of parenting, birth order and sibling spacing. Changes in family relationships brought about by newborn were mostly positive.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최근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국가적 정책과 여성의 경제참여로 인하여 하락되었다고 인식되었던 출산율이 1988-1990년 사이에 무려 17% 증가하였고, 어머니 연령이 35세 이상인 늦둥이 출산도 17%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즉, 1987년과 199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이시백

(1993)의 연구에서 35-39세 집단의 有配偶出產率이 16.7%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보건기구는 35세 이상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고령출산의 범주에 넣고 있으며, 1958년 국제산부인과학회에서도 35세 이상에서 첫 생존가능아를 출산하는 산모를 고령초산부라고 정의하여서 고령이 임신 및 출산에 미치는 위험에 관한 논문들(이선옥, 1986; 이종학, 1987; 황연자, 1988; 최동석·김윤하·임종신·송태복, 1989)

* 본 논문은 1994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경희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이 의학분야에서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다. 이렇듯 고령출산이 갖는 위험이 의학분야에서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출산이 증가한 데에는 원인이 있으리라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증가한 고령출산율에 착안하여, 고령출산동기를 유형화하며, 늦둥이 자녀의 출산 동기에 따른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늦둥이자녀로 인하여 가족관계에 일어난 변화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국내연구에서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모역할만족도와 그 자신감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

2. 연구문제

고령출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고령출산 동기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연구문제 2) 고령출산 동기에 따라 부모역할만족도 및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고령출산모의 일반적인 배경변수(교육수준, 취업유무, 양육경험년수, 자녀의 성별, 늦둥이 자녀의 월령 및 출생순위, 뒷 자녀와의 터울, 가족형태와 출산유형, 늦둥이자녀의 임신계획)에 따라 부모역할 만족도 및 자신감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늦둥이 자녀로 인해 가족관계에 일어난 변화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1) 부모역할만족도: 자녀양육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역할 수행능력에 대해 어머니가 갖는 심리적 만족도를 의미한다.

2)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어머니됨에 대한

인식과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기술 등을 갖추고 있어서,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어머니의 양육역할에 대해 어머니 스스로 자신을 갖거나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이다.

3) 고령출산: 본 연구에서 사용될 고령출산의 범주는 초산인가 경산인가에 관계없이 어머니의 연령이 35세 이상이 넘어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 정의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고령출산증가의 사회적 배경

이시백(1993)은 1987년과 1990년에 20-49세의 유배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전체 유배우출산율이 17.1%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즉, 20-24세 집단은 12.9%, 25-29세 집단은 21.9%, 30-34세 집단은 29.3%, 35-39세 집단은 16.7%가 증가하였고, 40-45세 집단은 75.0%의 감소, 45-49세 집단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단산을 해야할 시기라고 인식되어왔던 35-39세 연령 집단의 유배우출산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과거에는 어머니의 연령이 30세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단산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중요 대상이 되지 못했던 이 연령집단의 출산력이 상승하고 있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일부 계층의 “늦둥이 출산붐”을 실제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이시백, 1993).

한편 급격한 산업화와 남녀평등사상의 보급, 핵가족화로 인하여 남아선호사상과 같은 전통적 ‘자녀관’이 어느 정도는 사라졌으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남아선호사상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연구보고(김현주, 1986; 박경애, 1993; 박재빈, 조남훈, 1984; 지하룡, 박재용, 1988;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함희순, 고갑석, 1981)가 많이 있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즉,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잔존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최근의 '고령출산율'증가는 남아선호사상과는 전혀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다.

2. 부모역할만족도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 연구는 만족이라는 단일 변수를 규명하기보다는 부모됨을 하나의 위기로 규정하여 부모됨의 어려움과 만족이라는 구조속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을 전후로 하여서는 부모됨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 만족, 태도와 신념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Ragozin, Basham, Crnic, Greenberg와 Robinson(198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부모역할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teffensmier(1982)는 비율적 무선표집을 통하여 6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모됨의 만족정도에 미치는 제반 변수의 영향력을 규명하였는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신에 대한 계획성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만족은 낮아지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ussell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과 만족도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혜란, 1984, 재인용). 그러나, Guidubaldi와 Cleminshaw(1989)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 또한 높아진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 이혜란(1984)의 연구에서 입

증된 바 있으며, 이외 자녀의 임신계획 유무 및 분만형태, 가족형태, 자녀의 연령에 따른 만족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정선, 1990).

그러나,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국내의 연구가 거의 없고, 대상자의 통제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제반 변수의 영향력을 논하기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3.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어머니역할에 대한 국내연구는 가정학분야에서 보다는 간호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왔고, 연구대상 자녀의 연령이 영아기초에 집중되어서 영아 돌보기활동을 측정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머니역할에 대한 자신감에 미치는 제반 변수의 영향력을 확정적으로 결론짓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

Mondell과 Tyler(1981)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부모교육이나 효율적인 양육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므로 교육수준은 지지적인 양육과 정적인 관련이 있고, 엄격한 훈육방식과는 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Simons, Beaman, Conger & Wei Chao, 1993). 이은숙(1988)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과 어머니의 역할자신감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초산모는 어머니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점차로 증가하여서 산후 4-6주가 경과한 후에는 상당히 자신을 갖게될 뿐 아니라, 영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머니 역할 수행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민감한 돌보기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그 자녀의 연령이 만 3세 이하인 고령출산모 150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연구자와 경희대학교 가정관리학과 학생들을 통한 눈덩이 표집을 이용하였다. 고령출산모와 늦둥이 자녀의 일반적 성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성격

N=150

변 수	내 용	빈 도(%)	변 수	내 용	빈 도(%)
교육수준	고졸이하	83(55.3)	인공유산경험	유	66(44.0)
	대졸이상	67(44.7)		무	84(56.0)
가족의 수입	100만원이하	28(18.7)	임신계획	유	107(71.3)
	101-150만원	45(30.0)		무	43(28.7)
	151-200만원	51(34.0)	성별검사	받았다	51(34.0)
	201만원 이상	26(17.3)		안받았다	99(66.0)
양육경험 년수	2년이하	16(10.7)	자녀의 성별	남	94(62.7)
	3-4년	16(10.7)		녀	56(37.3)
	5년이상	118(78.7)	자녀의 월령	1-12개월	56(37.3)
직 업	유	36(24.0)		13-24개월	43(28.7)
	무	114(76.0)		25-36개월	51(34.0)
가족형태	핵가족	123(82.0)	출생순위	첫째	19(12.7)
	대가족	27(18.0)		둘째	63(42.0)
분만형태	자연분만	111(74.0)		세째이상	68(45.3)
	인공분만	39(26.0)			

2. 측정도구

고령출산모의 부모역할만족도는 Cleminshaw-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1989)을 번안한 30문항의 4점 Likert척도로써 측정하였다. 원문항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상대편 배우자로부터 제공받는 지지에 대한 만족을 묻는 배우자의 지지,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의 질에 대한 만족을 묻는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부모자신의 자녀양육수행에 대한 만족과 관련된 부모의 역할수행에 대한 세 하위 영역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연구의 목적이 고령출산모의 부모역할만족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배우자의 지지에 관한 문항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서 이와 관련된 15문항은 삭제하였다.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Gibaud-Wallston(1977)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을 번안하여 측정하였다. 원문항은 총17문항의 6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

형다'의 5점 Likert척도로 조사하였다. 이외에 고령출산모를 대상으로 한 면접도구는 연구자가 작성한 측정도구로써 늦둥이를 출산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늦둥이의 출산 이후 가족관계에 일어난 변화 및 어머니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나 변화, 그리고 어머니와 늦둥이 자녀의 일반적인 배경변수를 질문하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절차

본 조사 실시 이전에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한 예비조사를 1993년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연구자가 눈덩이표집을 통해 늦둥이 자녀를 둔 30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결과, 부모역할만족도의 신뢰도분석에서 문항 간의 내적 합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 계수가 .63,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Cronbach α 계수가 .73으로 산출되었다.

본조사는 질문지의 유의사항과 면접방법을 훈련받은 경희대학교 가정관리학과 3학년생 29명이 1993년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IV. 결과해석 및 논의

1. 고령출산의 동기

늦둥이 자녀를 둔 고령출산모의 출산동기에 대한 빈도분석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고령출산 동기의 구체적 사유는 모두 15가지로써,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동기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36.7%)'이고, 그 다음으로 '윗자녀가 외로울까봐'(19.3%)', '계획에 없던 임신(12.0%)', '아이를 원했으나 임신이 계속 안되어서(8.0%)', '결혼이 늦어져서(8.0%)'가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딸을 낳기 위해서(4.0%)', '직장때문에(2.0%)', '어머니의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출산을 미

루어 오다가(2.0%)', '경제적 문제때문에(2.0%)', '시부모의 권유(2.0%)', '남편과 아이들이 원해서(1.3%)',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0.7%)', '친구의 출산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0.7%)', '사제의 권유로 사제로 봉헌하기 위해서(0.7%)', '큰 애를 사고로 잃어서(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 나타난 15가지의 출산 동기를 그 내용에 따라 "전통적 동기", "수동적 동기" 그리고 "개인적 동기"로 분류를 하였다. "전통적 동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와 '윗 자녀가 외로울까봐', 그리고 '딸을 낳기 위해서'로써 전체 사례의 60.0%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남아선호사상이나 다자녀관과 같은 전통적 가치가 많이 남아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선호사상에 관한 연구보고(김현주, 1986; 박경애, 1993; 박재빈·조남훈, 1984; 이홍탁, 1982; 지하룡·박재용, 1988; 한국인구보건원, 1989; 함희순·고갑석, 1981)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인구정책으로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인식되었던 '한자녀 갖기'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다자녀관'의 가치와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늦둥이 자녀의 출산 동기를 '아들을 낳기 위해'라고 응답한 55 사례 중, 실제 아들을 출산한 경우는 44사례(80.0%)이고, 딸을 출산한 사례는 11사례(20.0%)였다. 또한 '아들을 낳기 위해'라고 응답한 55사례의 임신기간 중 태아성별검사 여부 빈도를 보면, 검사를 한 사례가 40사례로써 55사례의 72.7%를 차지하고 있고, 검사를 하지 않은 사례는 15사례로 27.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른바 '늦둥이 출산붐'이 '남아선호사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해주고 있다.

〈표 2〉 고령출산의 동기

N=150

구 분	내 용	빈도(%)
전통적 동기(60.0%)	아들을 낳기 위해	55(36.7)
	윗자녀가 외로울까봐	29(19.3)
	딸을 낳기 위해서	6(4.0)
수동적 동기(15.3%)	계획에 없던 임신	18(12.0)
	시부모의 권유	3(2.0)
	남편과 아이들이 원해서	2(1.3)
개인적 동기(24.7%)	아이를 원했으나 임신이 안되어서	12(8.0)
	결혼이 늦어져서	12(8.0)
	직장 때문에	3(2.0)
	어머니의 건강 상 출산을 미루다가	3(2.0)
	경제적 문제 때문에	3(2.0)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1(0.7)
	친구의 출산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1(0.7)
	사제의 권유로 사제로 봉헌하려고	1(0.7)
	큰 애를 사고로 잃어서	1(0.7)

늦둥이 자녀의 출산 동기가 ‘계획에 없던 임신’, ‘남편과 아이들이 원해서’, 그리고 ‘시부모의 권유’인 사례는 다른 출산 동기와는 달리 고령출산도 본인의 적극적 의지보다는 주변 상황에 의한 출산 동기로서 “수동적 동기”로 범주화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 사례의 15.3%를 차지하고 있었다.

끝으로 “개인적 동기”로는 ‘아이를 원했으나 임신이 계속 안되어서’, ‘결혼이 늦어져서’, ‘직장 때문에’, ‘어머니의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 출산을 미루다가’, ‘경제적 문제때문에 자녀 출산을 미루어 오다가’,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친구의 출산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사제의 권유로 사제로 봉헌하기 위해서’, 그리고 ‘큰애를 사고로 잃어서’로 전체 사례의 24.7%였다. 이 중에서 ‘결혼이 늦어져서’, ‘어머니의 직장때문에’인

경우가 전체 사례의 10.0%를 차지하여서, 현대 사회의 초혼연령 상승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령출산모의 늦둥이 출산이 소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30대 주부의 유행병이라는 논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었다. 물론 편의표집에 의한 본 연구의 결과만을 갖고 확정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늦둥이 자녀 출산의 주된 이유가 ‘아들을 낳기 위해’와 ‘윗자녀가 외로울까봐’ 등과 같은 전통적 동기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늦둥이 출산을 유행병이라 규정짓기는 어렵다고 본다.

2. 고령출산의 동기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 및 자신감

1) 고령출산의 동기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

〈표 3〉은 고령출산의 동기에 따른 부모 역할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이다. 표에 의하면, 고령출산의 동기에 따라 부모역할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고령출산 동기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

N=150						
변수	내용	n	Mean	SD	F값	
고령출산의 동기	전통적 동기	90	69.76	3.94	0.31	
	수동적 동기	23	69.39	4.68	(n.s)	
	개인적 동기	37	69.16	3.78		

n. s=not significant

2) 고령출산의 동기에 따른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

〈표 4〉 고령출산 동기에 따른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

N=150						
변수	내용	n	Mean	SD	F값	
고령출산의 동기	전통적 동기	90	57.47	5.91	0.96	
	수동적 동기	23	57.74	6.86	(n. s)	
	개인적 동기	37	55.95	5.96		

n. s=not significant

고령출산 동기에 따른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전통적 동기 집단 (Mean=57.47, SD=5.91)과 수동적 동기 집단 (Mean=57.74, SD=6.86)의 평균점수가 개인적 동기 집단 (Mean=55.95, SD=5.96)의 점수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고령출산동기에 따른 자신감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3. 고령출산모의 일반적 배경변수에 따른 부모 역할만족도와 자신감

고령출산모의 일반적 배경변수에 따른 부모 역할만족도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다는 Steffensmeir(1982)의 연구, 그리고 정적 상관이 있다는 Guidubaldi와 Cleminshaw(198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의 성별 및 월령에 따른 부모 역할만족도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이해란(1984)의 연구와는 일치하고 있다. 이와같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변수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만족도라는 종속변수 자체가 심리적인 평가여서,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적인 측면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배경변수 이외에 어머니의 기질이나 자아존중감, 혹은 인성적 특성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편,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분석에서는 고령출산모의 양육경험년수, 늦둥이자녀의 출생순위, 늦둥이 자녀의 출생순위가 둘째이상인 경우 윗자녀와의 터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양육경험년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출생순위가 늦을수록, 윗자녀와의 터울이 길수록 그 자신감은 높게 나타난 것이다. 대개 부모는 첫 아이에게 불확실한 지식이나 태도때문에 시행착오적 실수를 많이 하고, 불안감을 표시하며 과잉보호적 태도를 갖게 된다. 반면에 둘째 아이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첫 아이의 경험으로 인해 보다 일관성있고 덜 불안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점(조복희,정옥분,유가효, 1989)을 감안할 때, 자녀의 출생순위가 첫째일 때보다 자신감 점수가 둘째이상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은 당연한 귀결로 간주할 수 있겠다. 또한, 윗자녀와 늦둥이자녀와의

터울이 커지게 되면, 어머니는 영아기 자녀를 돌볼 때 요구되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윗자녀가 늦둥이자녀의 양육지지를 해줄 수 있게 되므로 터울에 따라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에 의

미있는 차이가 나타난다고 본다. 이외에, 고령출산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신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자신감이 높아진다는 Mondell과 Tyler(198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

〈표 5〉 고령출산모의 일반적 배경변수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와 자신감¹⁾

변 수	내 용	n	부모역할만족도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Mean(SD)	F(t)값	Mean(SD)	F(t)값
교육수준	고졸이하	83	69.25(3.99)	1.01	57.40(5.97)	1.09
	대졸이상	67	69.93(4.01)	(n. s)	56.81(6.22)	(n. s)
취업유무	유	36	69.58(5.24)	1.17	55.89(7.05)	1.52
	무	114	69.54(3.94)	(n. s)	57.15(5.71)	(n. s)
양육경험년수	5년이하	35	69.14(4.20)	0.45	53.51(6.05)C	12.68**
	6-10년	59	69.44(4.16)	(n. s)	56.92(5.79)B	
	11년이상	56	69.93(3.73)		59.63(5.22)A	
자녀의 성별	남	94	69.54(4.24)	1.39	57.17(6.43)	1.38
	녀	56	69.57(3.60)	(n. s)	57.07(5.48)	(n. s)
자녀의 월령	1-12개월	56	69.54(3.93)	2.87	56.66(6.92)	0.27
	13-24개월	43	70.63(3.12)	(n. s)	57.34(5.88)	(n. s)
	25-36개월	51	68.67(4.55)		57.47(5.27)	
출생순위	첫째	19	68.74(4.36)	-0.88	53.79(5.84)	-2.66*
	둘째이상	131	69.67(3.95)	(n. s)	57.62(5.97)	
터 울	3년이하	22	68.68(4.38)	0.84	54.05(6.84)B	10.96**
	4-5년	27	69.96(3.73)	(n. s)	55.26(5.87)B	
	6년이상	82	69.84(4.89)		59.35(5.07)A	
가족형태	핵가족	123	69.49(4.44)	1.69	57.14(5.98)	1.21
	확대가족	27	69.85(4.93)	(n. s)	57.11(6.58)	(n. s)
분만형태	자연분만	111	69.60(3.95)	1.12	57.88(5.28)	2.06**
	인공분만	39	69.41(4.18)	(n. s)	55.00(7.58)	
임신계획	유	107	69.73(3.99)	1.03	56.66(6.24)	1.27
	무	43	69.12(4.40)	(n. s)	58.30(5.54)	(n. s)

n. s.=not significant * $p < .05$ ** $p < .01$

주 1) Scheffé의 사후검증에 의한 집단화로 같은 문자로 표시된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4. 고령출산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

어머니가 지각하는 늦둥이자녀와 부모관계는 <표 6>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절대 다수가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없다’고 응답한 사례가 각각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소수 의견으로써 어머니와 늦둥이자녀관계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는, ‘젊은 어머니들에 비해 잘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와 ‘아이에게 너무 관대하게 대한다’가 각각 2.0%를 차지하고 있고, ‘아이와 지낼 시간이 부족하다’가 0.7%를 차지하였다. 고령출산모가 지각한

아버지와 늦둥이 자녀관계에 있어 문제점은 ‘아이에게 너무 관대하게 대한다’가 3.3%, ‘아이와 지낼 시간이 부족하다’가 2.0%를 차지하였고, 문제가 ‘없다’는 94.7%의 비율을 보였다.

늦둥이와 윗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늦둥이의 출생순위가 둘째 이하인 경우만 분석이 되었는데, 부모자녀관계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4.0%, ‘윗자녀의 질투’가 16.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윗자녀의 질투’라고 답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바로 윗자녀와의 터울이 적은 경우가 많았다.

<표 6> 늦둥이 자녀와 가족관계

N = 150

구 분	내 용	빈 도(%)	구 분	내 용	빈 도(%)
모자관계	만족한다	146(97.3)	부자관계	만족한다	145(96.7)
만족정도	그저그렇다	2(1.3)	만족정도	그저그렇다	4(2.7)
	불만족	2(1.3)		불만족	1(0.7)
모자관계	없 다	143(95.3)	부자관계	없 다	142(94.7)
문제점	미안한마음	3(2.0)	문제점	아이에게관대	5(3.3)
	아이에게관대	3(2.0)		접촉시간부족	3(2.0)
	접촉시간부족	1(0.7)	형제관계	없 다	110(84.0)
임신중	태아의 건강	68(45.3)	문제점	윗자녀의 질투	21(16.0)
	어려움	25(16.7)		출산후의	양육부담
어려움	태아의 성별	25(16.7)	변 화	없 다	33(22.0)
	유산의 우려	21(14.0)		생활의 활력	24(16.0)
	없 다	18(12.0)	건강악화	19(12.7)	
	어머니 건강	12(8.0)	심리적 안정	18(12.0)	
	기 타	6(4.0)	가족간유대감	10(6.7)	
			기 타	11(7.4)	

“늦둥이의 출산으로 어머니나 가족 내에 일어난 변화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상자의 23.3%가 ‘양육부담이 증가

하여 어머니만의 시간이 없어졌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변화나 문제는 없다(22.0%)’, ‘생활이 보다 활력적이 되었다(16.0%)’, ‘어머니

의 건강이 늦둥이 출산 이전보다 나빠졌다(12.7%)’,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12.0%)’, ‘가족간 유대감이 증가하였다(6.7%)’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사례도 7.4%를 차지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아이를 다시 키워보니 젊어진 기분이 든다(4.0%)’, ‘나이가 들어 아이를 키우려니 육체적으로 힘들다(2.0%)’, ‘어머니의 건강이 늦둥이 출산 이전보다 좋아졌다(0.7%)’, ‘윗자녀의 불만이 많다(0.7%)’가 있었다.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이라 응답한 사례에서는 늦둥이 성별이 남아여서 마음이 든든하고 의지가 된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늦둥이 임신 중 어려웠던 점이나 걱정된 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상자의 가장 많은 비율(45.3%)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태아의 성별이 걱정되었다(16.7%)’, ‘유산의 우려(14.0%)’, ‘어려웠거나 걱정된 것이 없었다(12.0%)’, ‘어머니 자신의 건강이 걱정되었다(8.0%)’의 순으로 답하였다. 이외 기타 의견으로는 ‘나이가 들어 임신을 하니 주위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웠다(2.0%)’,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1.3%)’, ‘임신 기간 중 윗 자녀가 어머니의 애정을 잃었다는 상실감을 가져서 힘들었다(0.7%)’가 있었다. 따라서 늦둥이 자녀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는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V.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한 고령출산율에 근거하여, 고령출산이 갖는 사회적 의미, 출산동기에 따른 고령출산모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자신감, 늦둥이 자녀로 인하여 일어난 가족관계의 변화, 그리고 일반적 배경변수에 따른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자신감의 차이와 늦둥이자녀로 인한 가족관

계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연구결과, 고령출산의 동기로는 ‘아들을 낳기위해’, ‘윗자녀가 외로울까봐’, ‘딸을 낳기 위해’와 같은 전통적 동기, ‘계획에 없던 임신’, ‘남편, 아이, 시부모의 권유’의 수동적 동기, ‘아이를 원했으나 임신이 안되어서’, ‘결혼이 늦어져서’, ‘직장 때문에’ 등의 개인적 동기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이중 남아선호사상과 다자녀가치의 전통적 동기가 전체 사례의 60%나 차지하고 있어서, 국가의 인구정책 및 남녀평등 사상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 자녀관이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령출산 동기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 및 자신감의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외에 일반적 배경변수에 따른 차이에서는 양육경험년수, 늦둥이 자녀의 출생순위, 윗자녀와의 터울에 따른 자신감에 유의한 차이만이 나타나서 고령출산모들은 대체로 일반적인 배경변수나 출산동기에 관계없이 부모역할에 만족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다. 또한 늦둥이 자녀의 출생으로 일어난 가족관계의 변화는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써, 부모와 늦둥이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늦둥이와 형제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사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늦둥이 출산 후 어머니에게 일어난 변화로는 ‘양육부담의 증가’, ‘육체적 피곤’과 같은 부정적 변화보다는 ‘문제가 없다’, ‘생활이 보다 활력적’, ‘심리적 안정감 및 행복감’이라 답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령출산모의 표집이 눈덩이표집에 의한 편의표집으로 일반화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 측정도구의 타당화가 국내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한점으로 들 수 있겠다. 그렇지만, 부모역할만족도나 자신감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아동학이나 가족학 등과 같은 가정학 분야에서보다는 다른 학문분야에서 다루어져왔고, 연구보고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다. 또한 고령출산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에 착안하여 고령출산모의 구체적 출산동기를 규명하고, 늦둥이 자녀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의 후속연구에서는, 앞서 지적했듯이 일반적인 배경변수 이외에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수의 영향력이 연구되어서,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부모역할만족도 및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의 이론적 모델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부모역할만족도 및 자신감과 아동 발달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시도 역시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현주(1985). 기혼 남녀의 자녀출산태도에 관한 연구-결혼지속기간 5년 이하의 유배우자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경애(1993). 임신부의 자녀관:성선호와 임신동기. 대한가정학회지, 31(1), 25-75.
- 박재빈·조남훈(1984). 성선호로 인한 과잉출생수의 추정. 인구보건논집, 4(1), 3-19.
- 원정선(1990). 부모됨의 전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옥(1986). 고령미경산부의 위험치와 신생아의 위험치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시백(1993). 최근의 인구 및 출산력 변동과 국가사회발전. 보건학논집, 30(1), 14-25.
- 이은숙(1988).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아 상호작용 민감성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종학(1987). 노령초산부에 관한 임상통계학적 고찰. 대한산부회지, 30(2), 135-141.
- 이혜란(1984). 부모역할로의 전환에 따른 어려움 및 만족도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복희·정옥분·유가효(1989). 인간발달. 서울: 교문사.
- 지하룡·박재용(1988). 종합병원 출생아의 성비에 관련된 요인. 한국인구학회지, 11(2), 67-75.
- 최동석·김윤하·임종신·송태복(1989). 35세 이상 임신에 관한 통계학적 고찰. 대한산부회지, 32(2), 71-77.
-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9).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 조사. 서울:한국인구보건연구원.
- 함희순·고갑석(1981). 자녀의 성구성이 출산조절행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구보건논집, 1(1), 40-57.
- 황연자(1988). 고령 초산부와 대조군의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임상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Guidubaldi, J., & Cleminshaw, H. K.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Satisfaction Scale. In M.J.Fine(Ed.),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Contemporary Perspectives* (pp. 257-277). San Diego:Academic Press.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 of Problem-Solving/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1), 73-78.
- Ragozin, A. S., Basham, R. B., Crnic, K.

A., Greenberg, M. T., & Robinson, N. M. (1982). Effect of Maternal Age on Parenting Role. Developmental Psychology, 18(4), 627-634.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Wei Chao(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1-106.

Steffensmeir, R. H. (1982). A Role Model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319-334.